

성대결절의 음성평가에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간의 관계 분석

윤영선, 이은경*, 손영익, 백정환, 추광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음성평가에서는 기기를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청지각에 의한 주관적 평가가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중 음향학적 분석인 MDVP(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의 지표들과 주관적 평가로 알려진 GRBAS점수를 비교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정도를 성대결절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양측 성대결절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아/발성을 5초간 지속한 것을 MDVP로 분석하여 jitter, shimmer, vFo, vAm, NHR, FTRI, ATRI 등 총 7가지 지표 값을 얻어내고, 숙련된 언어임상가 1명의 청지각적 판단을 GRBAS를 통해 4단계로 평가하게 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언어임상가의 청지각 판단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복 측정을 하고, 다른 언어임상가 1명에게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고 GRBAS 평가를 하게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결과 : 각각의 MDVP 지표들은 대부분 서로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G(grading)는 jitter, shimmer, vAm, ATRI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R(rough), B(breathy), A(asthenic)는 특정 MDVP 지표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S(strained)는 jitter, shimmer, vAm, ATRI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G는 R, S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성대결절의 경우, 청지각적인 지표와 상관성이 있는 MDVP 지표는 jitter, shimmer, vAm, ATRI이었고, 주로 amplitude perturbation에 청지각적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rough)와 S(strained)의 값이 전체적인 severity에 영향을 준다고 사료되었다.